

## 세계도시동향

|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헤드라인뉴스 | 1  | 투자금 회수 못한 엔젤투자자에 보상금 지급       | 상하이     |
| 산업·경제  | 2  | 홍구탄 지구에 가상현실 산업기지 만든다         | 난창      |
|        | 4  | 부가가치 높은 신사업 창조 플랫폼 사업 시행      | 오사카     |
| 사회·복지  | 7  | 임대주택 건설 시 건설비 용자·지원금 제공 등 혜택  | 뮌헨      |
|        | 9  | 장애인·비장애인 모두 입을 수 있는 의류 디자인    | 파리      |
|        | 11 | ‘노숙자 효과적 지원방안 마련’ 시점조사 착수     | 시카고     |
| 행재정·교육 | 13 | 공립학교 학생 복리증진에 1,470억 원 투자     | 뉴사우스웨일즈 |
| 도시교통   | 15 | 블루투스 시스템 적용 ‘통학버스 점멸등 표지판’ 도입 | 오하이오    |



## 투자금 회수 못한 엔젤투자자에 보상금 지급

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목적...투자 1건당 5억여 원 보상

중국 상하이시 / 산업·경제

- 중국 상하이시는 청년들의 창업 촉진과 신생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 엔젤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시 정부가 이 투자금 일부를 보상하는 '상하이 엔젤투자 리스크 보상관리법(上海市天使投资风险补偿管理暂行办法)'을 2016년 2월부터 시행
- 배경
  - 현재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와 샤오미 등 IT 기업의 성공에 힘입어 청년들의 IT 기업 창업 붐이 일고 있음.
  - 중국정부와 지방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며 청년들의 창업 촉진을 지원
  - 상하이시에서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454개의 혁신창업 서비스기관(스타트업 지원기관)이 창업 관련 법률문제나 투자유치 등을 상담하고 지원함.
- 주요 내용
  - 투자기업이 보상받을 수 있는 연간 상한액은 600만 위안(10억 7천만 원)이며, 실패로 끝난 투자 1건당 300만 위안(5억 3,500만 원)의 보상금을 지급
  - 보상금액의 산정은 투자금 총액과 회수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출
  - 투자손실 보상이 가능한 기업
    - 직원 수 50명 이하,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기업
    - 자산규모 및 매출이 각각 500만 위안(8억 9천만 원) 이하인 기업

<http://www.stcsm.gov.cn/gk/zcfg/gfxwz/fkwwj/343485.htm>

<http://sh.people.com.cn/n2/2016/0126/c134768-27626872.html>

<http://xueqiu.com/8405821438/64223405>

## 산업·경제

### 홍구탄 지구에 가상현실 산업기지 만든다

중국 난창市 / 산업·경제

- 중국 장시성(江西省) 난창市는 최근 들어 VR(가상현실)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앞으로 3~5년 이내에 홍구탄(紅谷灘) 신개발지구에 ‘중국VR산업기지’를 건설하여 VR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
- 배경
  - 난창市는 중앙정부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정책에 편승하여 산업클러스터의 조성과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정책을 전개
  - 또한 VR 산업에 필요한 광학 설비, 정밀기기 제조 등을 선점하고 있으며, 2015년 ‘국가 소형기업 창업혁신기지 시범도시’로 선정됨.
  -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장시성 전체의 전자정보와 신형 광전자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음.
- 산업기지 건설
  - 산학연 협력이 가능한 클러스터를 추진하기 위해 ‘중국VR중점실험실’ 분원 설립 및 베이징항공천대학의 소프트웨어 학부 분교 유치
  - ‘중국VR중점실험실’ 분원에는 VR 산업 관련 최고의 인재들을 초빙하여 업계 표준 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
  - 엔젤펀드와 투자기금의 설립
  - VR 산업 관련 국제엑스포 개최, 국제학술교류 추진, 테마파크 건설, 기업혁신 센터 설립 등
- 산업기지의 주요 목표
  - 앞으로 3~5년 이내에 1만 명의 전문인력 육성
  - 10억 위안(1,770억 원) 규모의 VR 엔젤펀드 조성 및 사무실 지원, 우수 인재 유치, 투자기업과 개인 등에 각종 우대정책 도입
  - 100억 위안(1조 7,700억 원) 규모의 VR 산업 투자기금 집행

- 1,000개 이상의 VR 관련 기업 유치
- 1,000억 위안(17조 7,700억 원) 이상의 생산액 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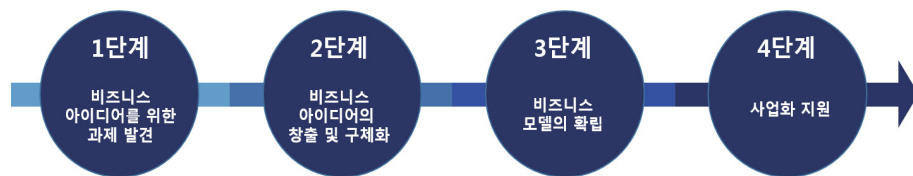
每日经济新闻, 2016-03-05

[http://www.ncwbw.cn/html/2016-02/23/content\\_286523.htm?div=2#](http://www.ncwbw.cn/html/2016-02/23/content_286523.htm?div=2#)

## 부가가치 높은 신사업 창조 플랫폼 사업 시행

일본 오사카府 / 산업·경제

- 일본 오사카府는 제조업, 서비스업, 연구기관 등의 사업자 그룹과 소비자 등의 이용자 그룹이 협력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는 ‘오사카 비즈니스 퓨처스(大阪ビジネスフューチャーズ)’ 사업을 2015년부터 시행함.
  - ‘오사카 비즈니스 퓨처스’
    - ‘앞으로 생겼으면 좋겠다’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나 새로운 문제를 신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
    -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4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사업 아이템으로 구현
- 목적 및 필요성
  -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와 이용자가 협력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
  - 신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시장의 잠재적 니즈 파악이 필요
- ‘오사카 비즈니스 퓨처스’의 진행과정



- 1단계: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 등이 이용자그룹과의 대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는 단계
- 2단계: 1단계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단계
- 3단계: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
- 4단계: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과 실제 사업화를 지원하는 단계

- ‘오사카 비즈니스 퓨처스’의 사례
  - ‘미래의 건강 비즈니스 디자인’
    - 배경: 웨어러블 기기 및 관련 앱의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건강 관련 비즈니스 창출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 및 워크숍이 필요
  - 1단계
    - 킥오프 이벤트: ‘미래의 건강 사업’을 주제로 그룹토론 이벤트 개최
      - 피트니스 센터의 트레이너, 영양사, 의료기구 제조업자 등 약 200명이 참여하여 각각의 흥미, 관심, 평소의 생각 등을 공유
    - 리빙 랩(Living Lab) 워크숍: 킥오프 이벤트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여 심화토론을 시행



리빙 랩(Living Lab) 워크숍의 한 장면

- 2단계
  - ‘아이디어 브로커(Idea Broker)’ 워크숍: 기업의 역량과 지금까지 나온 과제와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프로그램
- 3단계
  - ‘비즈니스 종이접기(ビジネス折り紙)’를 통해 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 실시
    - ‘비즈니스 종이접기’는 비즈니스를 통해 제공하게 되는 다양한 요소를 모형이나 그림으로 제작하여 각 요소의 역할과 관계를 정리해나가는 워크숍 방법

- ‘비즈니스 모델 캔버스(Business Model Canvas, BMC)’를 작성하여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시뮬레이션
  - BMC는 9개의 블록으로 이뤄진 비즈니스 모델 전략 툴
- 4단계
  - 현재 오사카부는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, 프로젝트 리더 등과 함께 사업화 준비 및 지원방안을 모색 중임.

[http://www.pref.osaka.lg.jp/keieishien/platform\\_2/](http://www.pref.osaka.lg.jp/keieishien/platform_2/)

[http://www.pref.osaka.lg.jp/keieishien/platform\\_2/platform-koubo2.html](http://www.pref.osaka.lg.jp/keieishien/platform_2/platform-koubo2.html)

<https://www.facebook.com/osakafutures/>

<http://osakafutures.tumblr.com/post/132924980498/season-1-%E6%B4%BB%E5%8B%95%E6%8C%AF%E3%82%8A%E8%BF%94%E3%82%8A>

[http://www.hitachi.co.jp/rd/portal/contents/design/business\\_origami/index.html](http://www.hitachi.co.jp/rd/portal/contents/design/business_origami/index.html)

## 사회·복지

### 임대주택 건설 시 건설비 용자·지원금 제공 등 혜택

독일 뮌헨市 / 사회·복지

- 독일 뮌헨市는 1996년부터 시행해 온 ‘뮌헨 모델(München Modell)’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주택 사업을 전개
  - ‘뮌헨 모델’은 자가 주택 및 임대용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임.
  - 뮌헨시는 2015년 4월 발효된 결정(Beschluss)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‘건설비용에 대한 용자 제공’, ‘소정의 지원금 지급’, ‘환경친화적 설계 및 환경 기준 준수와 관련한 기술적 자문’ 등을 제공
    - 결정(Beschluss): 국가기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확정된 의사 또는 그 의사를 확정하는 일
- 배경
  - 독일의 사회주택 사업은 연방법에 따라 시행됨.
  - 사회주택 사업의 추진 및 주거공간의 확보는 원칙적으로 주의 업무이며, 연방 정부는 각 주에 예산을 지원
  - 연방정부는 2019년까지 각 주에 연간 5억 1,820만 유로(6,780억 원)를 지원할 예정
  - 뮌헨시에 따르면 ‘뮌헨 모델’을 통해 그동안 총 77,000여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였으며, 이 중 44,000여 가구가 임대용 주택임.
- 뮌헨시의 지원내용
  - 건설비에 대한 용자금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,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
    -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m<sup>2</sup>당 최대 2,100 유로(280만 원)의 용자금을 지원
    - 용자금액은 주택의 형태와 면적에 따라 42,000유로(5,500만 원)~



77,800유로(1억 160만 원)임.

- 건설비의 용자는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

에너지효율등급에 따른 지원금액 기준표

| 건물 신축       | 건물 증·개축     | 지역열병합 난방 설치 시      | 지역열병합 난방 미설치 시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에너지효율 표준 건물 | 에너지효율 표준 건물 | ㎡당 1,850유로(242만 원) | ㎡당 1,900유로(250만 원) |
| 에너지효율 70*   | 에너지효율 100   | ㎡당 1,900유로(250만 원) | ㎡당 2,000유로(262만 원) |
| 에너지효율 55    | 에너지효율 85    | ㎡당 2,000유로(262만 원) | ㎡당 2,100유로(276만 원) |

- 시는 임대용 주택 입주자에게 연간 ㎡당 15유로(2만 원)의 건물 관리비용을 지원
- 시는 환경친화적 설계 및 환경기준 준수와 관련한 기술적 자문을 무상으로 제공

– 기타사항

- 임대인은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반드시 임대차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최초 임대료는 관리비를 제외하고 ㎡당 9.4유로(12,000원)를 초과하지 못함.
- 시는 사회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일정 액수의 임대차 지원금을 제공
  - 처음으로 임대한 임차인에게는 매월 ㎡당 3.75유로(5,000원)를 지급하며, 임차인은 이를 36개월마다 새로이 신청할 수 있음.
- 뮌헨시는 사회주택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, 사회적 긴급성, 뮌헨시 내에서의 체류 이유 및 체류 기간 등에 따른 심사를 통해 주택 임대를 주선

<http://www.bmub.bund.de/themen/stadt-wohnen/wohnraumfoerderung/soziale-wohnraumfoerderung/>

<http://www.muenchen.de/rathaus/Stadtverwaltung/Sozialreferat/Wohnungsamt/Sozialwohnung.html>

<http://www.muenchen.de/rathaus/Stadtverwaltung/Referat-fuer-Stadtplanung-und-Bauordnung/Wohnungsbau/Mietwohnungsbaufoerderung.html>

\* '에너지효율 70'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기준량의 70% 이하인 건물을 의미

## 장애인·비장애인 모두 입을 수 있는 의류 디자인

프랑스 파리지 / 사회·복지

- 프랑스 파리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입을 수 있는 옷을 디자인하는 A&KClassics를 ‘아틀리에 드 파리(Ateliers de Paris)’에 입주시킨 후 수년간 지원
  - ‘아틀리에 드 파리’: 파리지 산하기관으로 18세 이상의 젊은 디자이너들을 지원하는 디자인 전문 인큐베이션 센터
  - A&KClassics: 디자이너 보스통(Chris A. Boston)이 2009년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같은 해 ‘아틀리에 드 파리’의 인큐베이터 입주기업으로 선정됨.
- ‘아틀리에 드 파리’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
  -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독립된 작업장과 안정적인 체계적인 작업환경 제공
  - 기업 운영과 디자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
  - 디자인 박람회, 디자인 콘쿠르, 디자인 견본시장 등의 행사에 참여
    - A&KClassics는 2010년 ‘윤리적 패션쇼(Ethical Fashion Show)’에 참가업체로 선정되어 보스통이 자신의 브랜드를 알릴 기회가 생김.
      - ‘윤리적 패션쇼’: 프랑스를 대표하는 윤리적 의상 진흥 패션쇼
  - 파리시는 ‘아틀리에 드 파리’ 출신의 디자이너들이 패션쇼나 의상전시회를 할 때 장소를 지원
    - 보스통이 꾸준한 활동을 펼치며 지속가능성을 보이자, ‘아틀리에 드 파리’의 인큐베이터 담당자가 직접 나서 파리시가 보유한 상점을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
- 보스통의 사회적 활동
  - 의상 제작과정에서 취업활동 취약자에게 기회 제공
    - 재취업 희망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와 7년째 협력하여 이들이 의류제작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쌓을 기회 제공
    - 장애 청소년이 패션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 제공
    - 아프가니스탄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한 난민 고용
  - 매년 장애인 모델과 비장애인 모델이 함께하는 패션쇼를 개최하여 장애인 의류 디자인에 대한 인식 재고



A&K Classics 패션쇼

<http://www.paris.fr/actualites/avec-chris-ambrasse-boston-allier-mode-et-handicap-devient-possible-3450>

[http://next.paris.fr/pro/2d3es-accompagnement-de-projets/ateliers-de-paris-pour-les-createurs-metiers-d-art-mode-et-design/rub\\_9521\\_stand\\_82881\\_port\\_23393](http://next.paris.fr/pro/2d3es-accompagnement-de-projets/ateliers-de-paris-pour-les-createurs-metiers-d-art-mode-et-design/rub_9521_stand_82881_port_23393)

<http://www.creersaboite.fr/lemag/ils-elles-creent-leur-boite/chris-ambrasse-boston-fondateur-de-ak-classics>

## ‘노숙자 효과적 지원방안 마련’ 시점조사 착수

미국 시카고시 / 사회·복지

- 미국 시카고시는 노숙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월 시점조사(Point-In-Time Survey)를 실시
- 배경
  - 미국 주택 및 도시계획국은 200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시점조사를 의무화함.
  - 시카고시는 매년 시점조사를 통해 쉼터와 공공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의 수를 지속적으로 파악
  -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하루에 3,000여 명의 노숙자들을 돌봄.
- 시점조사 방법
  - 시는 자원봉사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조사를 실시
  - 또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
    - 시점조사 진행방법
    - 노숙자를 카운팅하는 법
    - 노숙자들과 인터뷰할 때 유의할 점 등
- 2016년도 시점조사
  - 100여 명의 공무원과 3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
  - 자원봉사자들은 100여 개의 팀에 배치되어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노숙하는 노숙자들을 조사
    - 한 팀은 자원봉사자 3~4명으로 구성되며 1명 이상의 경험자가 포함됨.
  - 시점조사는 저녁 8시부터 오전 2시까지 21개 지역에서 실시함.
- 시점조사 자료의 활용
  - 시카고시의 주택보급종합계획인 ‘Chicago’s Plan 2.0’ 및 노숙자 지원 정책 수립
    - 시는 ‘Chicago’s Plan 2.0’을 통해 노숙자들의 장기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단기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
  - 노숙자들의 수효와 장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분배

- 노숙자들에게 제공할 주택의 수량 및 종류
- 노숙자들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
- 어느 지역에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

<http://www.cityofchicago.org/city/en/depts/fss/provdrs/emerg/news/2016/january/city-of-chicago-conducts-annual-survey-of-homeless-population.html>

## 행재정·교육

### 공립학교 학생 복리증진에 1,470억 원 투자

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/ 행재정·교육

-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학생들의 인격 함양과 복리 증진을 통해 교육성과를 개선하고자 ‘지원을 잘 받은 학생이 성공한다(Supported Students, Successful Students)’ 사업을 앞으로 5년간 시행할 예정
  - 주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에 50명의 학생지원담당관을 중·고등학교에 배치하여 그 효과성을 측정
- 사업의 목적
  -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
  - 학교 따돌림이나 사이버 따돌림 등 부적절한 행위에 사전적 대처
  - 취약계층 학생지원에 학교가 효과적으로 관여
- 사업의 주요 내용
  - 학생지원 인력의 증원
    - 주 정부는 공립학교에 상담사와 사회사업가 등 학생지원 인력을 45% 증원할 예정
    - 모든 공립학교에 상근 상담직을 배치
    - 학교의 복리 욕구에 따라 학생지원담당관, 심리사, 특수교사 등의 추가적인 복리서비스도 가능
  - 학생지원 예산의 증액
    - 1억 6,700만 호주달러(1,470억 원)를 투자하여 236개의 학교에 상담사와 심리사를 추가 배치
    - 각 학교는 학생의 복리증진 서비스를 위해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.
    - 사회사업가 배치나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개별 학교의 복지 욕구에 따라 예산의 유연한 사용이 가능

- 학생지원 프로그램
  - 다양한 학교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개별 학교에서 이를 활용하거나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
-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특별 지원
  - 원주민학생과 벽지(僻地) 학생의 복리에 8백만 호주달러(72억 원)를 지원
  - 난민학생의 주류화를 돕기 위해 4백만 호주달러(36억 원)를 배정

<https://www.nsw.gov.au/media-releases-premier/delivering-more-public-school-counsellors>

<http://www.dec.nsw.gov.au/about-the-department/our-reforms/supported-students-successful-students>

## 도시교통

### 블루투스 시스템 적용 ‘통학버스 점멸등 표지판’ 도입

미국 오하이오주 / 도시교통

- 미국 오하이오주 교통국은 ‘스쿨버스 정거장 앞(School Bus Stop Ahead)’ 표지판 주변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‘스쿨버스 정거장 앞’ 표지판을 점멸등(Flashing)으로 교체하여 표지판의 효용성을 높일 예정
- 배경
  - 오하이오주 교통국에 따르면 스쿨버스 관련 교통사고 중 20%가 ‘스쿨버스 정거장 앞’ 표지판 주변에서 발생
  - 실제로 스쿨버스는 하루에 두 번 운행되지만, 운전자는 이 표지판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은연중 스쿨버스 관련 표지판을 경시하게 됨.
- 점멸등 표지판의 도입
  - 오하이오주 교통국은 다양한 표지판을 대상으로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블루투스 시스템을 적용한 점멸등 표지판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
    - 블루투스 시스템은 스쿨버스가 다가올 때 ‘스쿨버스 정거장 앞’ 표지판에 설치한 점멸등이 작동되어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음.
  - 오하이오주 교통국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파일럿 테스트(Pilot Test)를 진행할 예정
- 오하이오주 교통국은 점멸등 표지판의 도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기대



<http://www.citylab.com/commute/2016/03/the-higher-tech-future-of-school-bus-stop-signs/474231/>